

1. 제목: 꿈의 마녀

2. 기획 의도

삶에 너무 재미가 없을 때, 애착이 생기지 않을 때 누군가는 바란다. 덕질(무언가에 파고드는 행위로 오타쿠에서 비롯된 신조어)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취미나 인물에 가지는 애착으로라도 삶을 돌릴 활력을 띠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덕질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인 '덕통사고'(덕질+교통사고의 조합 신조어)는 내 마음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연예인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 중에 꿈에서 그 연예인을 보고 좋은 인상을 받게 되어 팬이 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것을 시쳇말로 '꿈 영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각해보았다. 만약 꿈 영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물론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 홍보를 위해 작업을 의뢰하기도 하겠지만 삶의 열정을 잃은 사람도 찾아가지 않을까. 사막 같은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사막을 건너는 동안 오아시스가 되어줄 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작품을 쓴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오면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힘으로라도 잠시나마 삶의 시름을 잊을 수 있기를.

3. 등장인물

이샷별(여, 31)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이지만 마녀의 피를 물려받아 상대방에게 특정 꿈을 꾸게 하고 타인의 꿈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내 불륜 사건에 휘말려 사표를 내던지고 이모 윤그루가 경영하는 꿈 영업 홍보회사 '꿈의 마녀'에 입사한다.

윤그루(여, 43)

샷별의 이모. 마녀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샷별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꿈을 조종하는 능력을 지녔고 그 능력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꿈을 이용해 연예인을 홍보하는 회사 '꿈의 마녀'를 운영하고 있다.

윤수정(여, 55)

샷별의 엄마, 그루의 언니로 마씨 된장의 CEO. 꿈을 조종하는 능력이야 있겠지만 사용해 본 적도, 사용할 마음도 없다. 그녀가 담긴 간장이 가득 담긴 간장독은 남의 꿈에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되는데 윤수정 여사는 귀한 간장을 딸과 동생이 꿈에 들어가는 수단 따위로 쓰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잔느(여, 외모는 30대, 실제나이는 수백 살)

유럽에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마녀재판에 고발된 수많은 여성 중에 정말 드물게(어찌

면 유일하게) 존재했던 진짜 마녀. 마녀사냥을 피해 광해군이 다스리던 한반도에 처음 발 디뎠고 흥가에 머물던 처녀 귀신을 거두고 튼실한 머슴을 꺾어 이 땅에 마녀의 핏줄을 남긴 그루와 셋별의 조상.

곱단(여, 20대 초반)

첫날밤 소박당해 귀밑머리만 풀린 채 혼례복 차림으로 새신랑이 떠난 집을 흥가가 되도록 지키고 있던 조선시대 처녀 귀신. 흥가에 살러 온 잔느의 말에 넘어가 가족이 된다.

주경선(여, 40대)

연예기획사 KS엔터테인먼트 대표.

지태훈(남, 20대)

KS 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최희진(여, 50대)

백화점, 면세점, 홈쇼핑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해피그룹 회장.

그 외

돌쇠, 회사 불륜 남녀, 과장 사모, 스파 직원, 매니저, '꿈의 마녀' 고객인 대표, 30대 여성 등...

4. 줄거리

마녀 잔느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꿈을 꾸게 하거나 타인이 꾸는 꿈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잔느의 후손인 그루는 꿈을 통해 연예인을 홍보하는 '꿈의 마녀'라는 홍보회사를 차리고 그루 혼자 운영하던 꿈의 마녀에 조카 셋별이 합류하게 된다.

셋별이 첫 출근을 하던 날, 연예기획사 KS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주경선이 독특한 작업을 의뢰한다. 자기 회사 소속 연예인 지태훈을 해피그룹의 광고모델로 만들기 위해 해피그룹 회장 최희진에게 태훈의 꿈을 꾸게 해달라는 의뢰였다. 셋별은 그 의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만 뜻을 이룬 주경선은 그루와 셋별을 사기꾼으로 몰며 잔금 치르기를 거부하는데...

씬 1. 현대 서울 도심/D

고층건물이 즐비한 도심 한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거리를 오가고 있다.

셋별(N)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이 언제부터 한반도에 살기 시작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정확하게 안다. 그것은 17세기 초, 당시 조선의 임금은 광해군이였다.

씬 2. 프랑스 시골 전경/D

자막-17세기 프랑스 흐르고

셋별(N) 이야기는 17세기 프랑스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다.

씬 3. 오두막 안/D

잡다한 세간살이로 꽉 찬 어두침침한 집안, 검은 머리를 가진 30대 여성의 외양을 한 잔느가 불 앞에 서서 냄비에 있는 스투를 젓고 있다.

셋별(N) 잠깐, 왜 이야기의 시작이 여자에서 시작하냐고? 그것은 우리 집안이 딸에서 딸에게 내려오는 집안이기 때문이다. 나의 먼 조상은 마녀였다고 한다. 빗자루를 타고 다니고 악마와 난잡한 파티를 즐기는 마녀가 아니라 그냥 남보다 조금 특출 난 능력을 지닌 정도였다.

잔느, 냄비 안의 국물을 맛보고 황홀한 표정을 짓는다.

셋별(N) 저것 봐, 저 고깃덩어리 몇 조각 없는 저 멀건 국물을 먹고 행복해하는 여자가 악마랑 아는 사이로 보여?
내 할머니는 그냥 사람들 틈에 섞여서 약초로 귀족 마나님들 불면증이나 고쳐주고 생계를 꾸리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마녀 사냥에 내몰려 고문에 시달리던 누군가 우리 할머니를 지목했고, 하필 그게 소발에 쥐잡기로 맞아떨어졌네?

황황황(E)

누군가 문 황황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놀란 잔느, 문으로 달려가 문틈으로 바깥을 살피면 집 앞에는 수도사와 장정들이 5~6명 와있다.

수도사 (프랑스어) 잔느 드부아!! 너는 악마와 계약하고 마법을 행했다!! 순순히 나와 심판을 받아라!!

입술을 깨물며 주춤주춤 물러난 잔느, 번뜩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헤집고 다니며 귀중품을 챙기기 시작한다. 장신구며 말린 고기 따위를 돌돌 싸서 집을 나서려는데 잔느의 품 안에서 타조알 정도 크기의 수정구슬이 바닥에 떨어져 또르르 굴러간다.

셋별(N) 감옥에서 빼줄 악마 연줄도 없고 고문을 당해서 아픈 척 연기를 할 자신도 없었던 내 할머니는 자칫 잘못하다가 잘 숨어 살고 있는 다른 마녀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도망가기로 결심했대!

수정구슬을 주울까 말까 잠시 고민하던 잔느.
바닥에 떨어진 수정구슬에서 특정 문양의 이상한 빛이 흘렀다가 사라진다.
잔느, 잠시 고민을 하다가 한 발을 들어 수정구슬을 거칠게 찍어 밟는다.
와지직 소리가 나며 박살이 난 수정구슬에서 파스스 푸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씬 4. 오두막 뒤편/D

뒷문으로 허겁지겁 빠져나가는 잔느.

씬 5. 바닷가 절벽/D

마침내 절벽 끝까지 당도한 잔느, 뒤를 돌아본다.
뒤에서는 저 마녀를 잡아라! 소리치며 달려오는 사람들이 보인다.
잔느, 눈을 질끈 감고 바다로 뛰어내린다.
뒤늦게 절벽에 도착한 수도사, 황당한 얼굴로 바다만 쳐다보고.

씬 6. 바다 위/D, N

셋별(N)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죽었겠지?

그때 ‘푸’하는 소리와 함께 널빤지를 끌어안은 잔느가 수면 위로 떠 오른다.

셋별(N) 하지만 나의 조상님은 과연 마녀였던 거지. 그렇게 오랜 기간 바다를 떠돌면서 좀 심심한 거 빼고는 배가 고프거나 춥지도 않았대.

잔느가 나뭇조각을 잡고 표류하는 동안 하늘은 여러 차례 낮과 밤이 바뀐다.

씬 7. 바닷가/D

잔느, 녀망가 된 옷을 입고 바닷가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다.

셋별(N)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날이 지나 마침내 이 한반도에 도착한 거지.

바닷가를 거닐던 한복 입은 아낙(3~40대) 2~3명이 잔느를 발견하고 잔느에게 달려 간다. ‘아이고, 이게 뭐래!’, ‘죽은 거 아니야?’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아낙들의 목소리에 잔느, 부스스 정신을 차리고.

아낙 1 이, 이봐요? 정신이 들어요?

아낙 2 아니, 왜 이런데 쓰러져있어? 다른 사람들은? 일행은 없어요?

관찰하듯 찬찬히 조선의 여인들을 바라보던 잔느의 한쪽 눈이 위험할 정도로 반짝 빛난다. 그리고 이내 입에서 유창한 조선말이 술술 흘러나온다.

잔느 배에서 도적을 만나 서방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물에 빠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어찌다 여기까지... (하며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아이고 저런...’. ‘불쌍해서 어째...’하면서 혀를 꼴꼴 차는 아낙들.

셋별(N)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거지꼴의 여자를 조선 사람들은 따뜻하게 품어줬대. 참 편견 없는 사람들이지 뭐야.

썩 8. 초가집 앞/D

다른 여인들처럼 한복을 차려입고 비녀를 꽂은 잔느, 아낙 1과 함께 초가집 앞에 서 있다. 사람 온기 하나 남아있지 않은 집은 문풍지에 구멍이 송송 뚫려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집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이 매우 스산한 분위기다.

아낙 1 (걱정스러운) 집이 필요하니까 내주긴 하는데...여기 살아도 될까 모르겠네...

잔느 아주머니, 뭐 때문에 그러세요?

아낙 1 여기, 사실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무성해.

썩 9. 초가집 마당, 방 안/D

아낙 1(E) 이 집에서 혼례를 치른 새색시가 그만 첫날밤에 소박당했지 뭐야! 신랑에게 버림을 받고 족두리에 혼례복 차림 그대로 자진을 했다지.

마당을 거쳐 집 안에 들어가는 잔느, 방 안으로 들어서다가 혼례복 차림으로 방 안에

앉아있는 귀신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 주저앉는다.

잔느 (프) 아이고 깜짝이야!

흔레복에 연지곤지를 찍은 여자 귀신은 눈구멍이 뚫려있는 듯, 눈알 대신 검은 그림자가 자리한 눈으로 잔느를 바라보는데.

<시간 경과>

편한 차림으로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는 잔느.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얼굴로 귀신을 타이른다.

잔느 너도 내가 사람이 아닌 건 느껴지지?

색시 귀신 (고개를 끄덕끄덕) ...

잔느 그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남자 여섯이랑 살았거든? 근데 남자 별거 없다. (하다가 울컥) 아니야, 별거 없긴? (갑자기 억울하다) 마지막 남편 놈이 조금만 오래 살았으면 내가 마녀로 몰릴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잠시) 하여튼 남자라는 것들은 그래, 너무 오래 살아도, 너무 일찍 죽어도 문제란 말이지.

색시 귀신 (영문 모르고 뻘뻘 잔느를 보고) ...

잔느 이 집에 방이 두 개더러. 작은 방 내 줄 테니 우리 같이 살자. 내가 이래 봐도 나이가 30살이 넘었고 이제 수명이 백 살도 안 남았어. 그러니 내가 인간 세상 떠날 때 같이 떠나자. 응? 너도 홀로 얼마나 외로웠니. (하고 손을 내밀면)

신부 귀신, 뺨 뚫린 눈구멍에서 눈빛은 읽을 수 없지만 입술이 움찔움찔하는 것이 감격을 한 모양새다. 그리고는 잔느가 내민 손에 자기 두 손을 얹는다. 두 손을 굳게 맞잡은 잔느와 새색시 귀신.

썩 10. 몽타주/D

1)장독대/D

장독에서 된장을 한 주걱 퍼서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잔느, 썩 3에서 스투를 맛볼 때 처럼 만족스러운 미소가 만면에 가득하다.

셋별(N) 그렇게 내 할머니는 조선에서 잘 살았다. 스투를 만들던 손으로 된장을 만들면서. 우리 할머니의 된장 담그는 솜씨는 정말이지 기가 막혔던 것 같다.

2)방 안/N

등잔불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잔느.

잔느 옆에 앉아있던 색시 귀신이 꾸벅꾸벅 졸자 발로 툭툭 치더니 자라고 이불을 향해 턱짓을 하고 색시 귀신은 미안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편다.

셋별(N) 눈이 빠지게 바느질을 하고 장을 담가서 한 재산을 일굴 정도로 말이지..

3)곳간 앞/D

곳간 안에 그득그득 쌓인 쌀가마니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짓는 잔느, 신이 나서 곳간 안에 들어가 쌀가마니를 이리저리 살펴보는 색시 귀신.

썩 11. 방 안, 마당/D

바느질을 하던 잔느, 기지개를 켜다가 밖에서 쿵쿵 하는 소리에 살며시 문을 열어 마당을 내다보면 돌쇠가 옷통을 벗고 도끼로 장작을 패고 있다. 근육이 단단하게 박힌 돌쇠의 등을 바라보는 잔느의 입에 굳침이 고인다.

잔느 어우, 실하기도 하지.

장작을 패던 돌쇠, 문득 뜨거운 눈빛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면 잔느, 웃고름을 입에 물고 돌쇠를 향해서 끈적끈적한 목소리로

잔느 돌, 쇠, 야?

돌쇠 ?

잔느 (프) (뇌쇄적인 눈빛을 하고 손가락을 까딱까딱) 이리 온...

그 말에 눈이 풀린 돌쇠, 도끼를 등 뒤로 집어 던지고 성큼성큼 걸어 흘린 듯이 방으로 들어가고

썩 12. 마당 전경/D

셋별(N) 떠나온 고향 땅에서 여섯 명의 남편을 만나고 제 손으로 문었다던 내 마녀 할머니는 기어코 이 땅에서 렉키 세븐을 채우셨다.
어찌어찌하다보니 인간 남자 사이에서 딸도 하나 낳았고 말이다.

썩 13. 서울 도심 전경 -1999년도 겨울

자막-1999년도 서울 흐르고.

셋별(N) 마녀의 피가 수많은 인간과 섞여 희석되고 희석되면서 마녀의 자손들의 수명은 줄고 특별한 능력은 사라졌다. 언뜻 보아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던 마녀의 후손에게 남은 단 한 가지 능력을 발견한 것은 자랑스럽게도 내 이모 윤그루씨였다.

씬 14. 전자제품 대리점 쇼윈도 앞/N

여러 대의 TV가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셋별(N)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한 편의 광고 때문이었다.

<인서트> 1999년 KT 휴대폰 광고, 가수 이정현이 핸드폰에 대고 “잘 자, 내 꿈 껴!” 하고 말한다.

씬 15. 집 앞/N

20세의 그루, 스펅글 곰인형이 달랑달랑 매달린 이스트팩 가방을 메고 있다.

집 앞까지 내려다준 남자친구(남, 20세)와 헤어지기 아쉬워 미적대던 그루, 남자친구의 손을 놓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다가 걸음을 우뚝 멈추고 남자친구를 돌아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외친다.

그루 잘 자, 내 꿈 껴!

씬 16. 남친 방/N

침대에 누워 잠이 든 그루의 남친, 악몽을 꾸고 있는 듯이 신음을 흘리며 이리저리 몸을 뒤척인다.

그 주위로 CG로 그루의 여러 가지 모습이 뽁뽁 떠오른다. ‘잘 자, 내 꿈 껴~’, ‘잘 자, 내 꿈 껴~’하는 그루의 목소리가 에코로 울리고.

셋별(N) 그 말에 오랜 세월 잠재해왔던 이모의 능력이 폭발했고 남자친구는 사흘 동안 내리 잠을 자면서 이모의 꿈만 꿴다고 했다.

씬 17. 카페/D

그루와 그루 남친, 카페 테이블에 마주앉아있다.

험한 얼굴의 그루 남친,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단을 내린 듯

그루 남친 우리, 헤어지자.

그루 !!!
그루 남친 (울먹) 그만 꾸고 싶다, 니 꿈...

씬 18. 수정 집 거실/D

수정(32세)과 그루(20세), 어린 셋별(8세)이 거실에 앉아있다.

셋별(N)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꿈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새롭게 발견한 능력에 기뻐한 것도 잠시-

어린 셋별, 그루를 바라보며 주문을 걸 듯

어린 셋별 이모, 내 눈을 바라봐. 이모는 돼지꿈을 꾸게 될 거야.

셋별을 바라보는 그루의 얼굴, 설렘과 기대에 가득 차있다.

씬 19. 수정 집 거실/D -다른 날

그루, 복권을 여러 장 굶는데 죄다 팡 팡 팡이다.

복권 위로 좌절해서 쓰러지는 그루를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셋별,
수정, 빨래 바구니를 가지고 거실에서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수정 (한심)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랬지?!

셋별(N) 돼지꿈을 꾸고 용꿈을 꾸게 할 수는 있어도 그 꿈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결국 우리가 심은 꿈은 미래를 예지하는 힘도, 행운을 가져다 주는 힘도 없었다. 그냥 꿈을 꾸는 사람의 기분만 좌우할 뿐. 그다지 쓸모없는 능력이었던 것이다.

씬 20. 즉석 떡볶이집/D -2009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셋별(18세), 트레이닝복 차림의 백수 느낌이 농후한 그루(30세)와 마주 앉아 즉석 떡볶이를 먹고 있다.

셋별 그냥 취직 안 되면 엄마 된장 만드는 거 도우라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그루 (뿌루통하게 있고) ...

셋별 우리가 그동안 별별 짓을 다 해봤잖아, 그런데 겨우 알게 된 거는 꿈을 꾸게 하는 거, 그리고 남의 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남의 꿈에 들어가도 별거 없더라. 엄마 장독만 깨고. 그냥 사업 구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된장 만들자, 이모야.

그때 셋별 등 뒤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고생들에게서 작은 함성이 터진다.
뭔가 싶어 TV를 보면 TV에서 2PM의 again & again 무대가 흘러나오고 있고.

여고생 1 너 언제부터 2PM 좋아했어? 별로 관심 없다고 했잖아.
여고생 2 아니 얼마 전에 준호가 꿈에 나오더라고. 그 뒤로 이상하게 설렌다?
여고생 3 (이해가 간다는 듯) 너도 당했구나, 꿈 영업.
 그렇지, 꿈에 나오면 바로 덕후 되는 지름길이지.

그 이야기를 들은 그루, 입가에 떡볶이 양념을 묻힌 채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입을 헤 벌리고 있다.

셋별(N) 그때였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번성이 뜻밖에도 이모에게 사업 아이템을 던져주었던 것이다.

씬 21. 도심 전경/D

자막-2022년 흐르고

씬 22. 기획사 대표실/D

테이블 위로 음반이 툭 떨어진다. 음반 케이스에 MZ라고 적혀있고 멋들어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소녀들의 사진이 박혀있다.
음반을 바라보던 그루(43), 대표(남, 40대)에게로 시선을 올린다. 앞 씬과는 달리 많이 성숙해진 외양에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다.

대표 (난감한) 우리 애들이예요. 연습기간도 길고 공도 많이 들였는데 이상하게 반응이 없네요.
그루 (활짝 웃으며) 저에게 맡겨주세요, 탄탄한 고정 팬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씬 23. 사무실/D

<인서트>

핸드폰 속 화면에서 유튜브 광고가 재생되고 있다. 격렬하게 춤을 추는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배경으로 그루가 나타나 마치 주문을 걸 듯 다정하게 속삭인다.

그루 저에게 10초의 시간을 주세요. MZ와 함께, 당신은 좋은 꿈을 꾸실 거예요.

영상을 끈 셋별, 피식 웃으며 핸드폰을 책상 위에 놓고 다시 업무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사모 여기, 이셋별이가 누구야!
셋별 ...네?

셋별,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며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식식거리며 사무실 입구에 서 있던 과장 사모(여, 40대 초반), 셋별의 위치를 확인하자마자 셋별에게 돌진해 다짜고짜 머리채를 휘어잡는다.

셋별 아악-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악! 사람 살려-
사모 나?! 나 김대현 마누라다! 니가 우리 남편이랑 놀아났지?!
셋별 (기가 막힌)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 밤마다 그렇게 절절하게 전화를 하고도 안 들킬 줄 알았니?! 야, 어디 꼬실 게 없어서 유부남을 꼬셔?!
셋별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 과장님이랑 그런 사이 아니에요!! (구경만 하던 대리에게 손을 뺄으며) 대리님! 대리님! 경찰 좀 불러주세요-아악!!!

그러나 하얗게 질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대리(남, 30대)는 셋별의 도움에 비겁하게 고개를 돌려 셋별을 외면해버리고

사모 니 전화번호 뒷자리가 5091이잖아!
셋별 아니라니까요! 이 머리채 좀 놓고 말씀하세요! 핸드폰 보여 드리면 되잖아요!
사모 (확신 없는, 목소리가 떨린다) 거, 거짓말 하지 마! 너잖아! (잠시, 울먹) 그 새끼가 너 주려고 분홍색 구두 사 놓은 거 봤어. 그 구두 카드 값이 127만 원 나왔더라. 애가 허약해서 뺄려면 코피가 터져서 보약 지어 먹이자고 했더니 그 돈 아깝다던 새끼가 카드 명세서에는 구두 값 127만 원이 찍혀있더라고! (울며) 너는 애 둘 딸린 새끼한테 백만 원 넘는 구두가 얻어 신고 싶던?!

그때, 웅성거리던 주위가 삼시간에 조용해진다.
셋별과 사모, 몸싸움을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곳을 쳐다보면 김과장과 윤사원(여, 20대 후반)이 다정하게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셋별과 사모를 보고 크게 놀란 김과장, 그 자리에 얼어붙어 우뚝 서고 윤사원은 깜짝 놀라 '어머' 소리를 내며 김과장 뒤로 몸을 숨기는데 언뜻 보아도 심상치 않은 사이

수정 (냉정) 그런 게 어딤어, 몸이 편하면 머리에 허튼 생각이 깃들게 마련인 거야. 잘됐네, 딱 메주 띄울 시기에 일손이 굴러 들어오다니. (하다가 셋별 보고) 왜, 싫어?

셋별 어, 엄마...나 이모랑 같이 일할 건데...

수정 (눈빛 매서워지고) 뭐?!

모녀간의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겠다 싶어진 그루, 수정을 향해 손사래를 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그루 언니! 난 셋별이한테 아무 말 안 했다! 같이 일하자고 한 적 없어!

셋별 이모랑 같이 꿈 영업할 거라고! 나 경영 전공했잖아! (그루 보며) 이모도 전문경영인 필요하지 않아?

그루 (입에 삐뚤름한 미소) 야, 무슨 개소리야, 경영학과 나왔다고 전문경영인이면 국악과 나오면 바로 무형문화재냐?!

씬 26. 셋별의 집 마당/N

셋별과 그루, 마당에 내놓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캔맥주를 훌쩍훌쩍 마시고 있다. 한동안 말없이 크고 작은 항아리가 빼곡하게 서있는 장독대와 꿈의 마녀 컨테이너 사무실을 주욱 둘러보는 두 사람.

마씨 된장이라고 적혀있는 트럭을 보고 셋별, 툭 내뱉듯 말한다.

셋별 마씨 된장이 뭐야, 이 집에 마씨가 어딤다고.

그루 (웃으며) 왜, 마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니 엄마의 노력인데.

셋별 아 그럼 그냥 마녀된장이라고 짓든지. 괜히 마씨들한테 미안하잖아, 도용한 것 같아서.

그루 마녀된장이라고 하면 뭔가 역사가 느껴지지 않잖아.

셋별 마녀된장이 뭐 어때서?

그루 너는 사또 마카롱, 영의정 샌드위치에서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냐?

셋별 (짹) ...듣고 보니 그러네.

그루 너 진짜 꿈 영업 하고 싶어서 여기 오려는 거야?

셋별 ?

그루 단순히 회사 다니기 싫어서 그런 거라면 그냥 된장 담가.

셋별 ...

그루 나 언니한테 혼나기 싫어. 마녀 종친회 사람들도 그거 아직 하냐고 안 좋게 생각한단 말이야.

셋별 이모가 외로울까 봐 그러지. (잠시) 엄마는 마녀 종친회 아주머니들이랑 같이 일하는데 이모는 지금 혼자 일하잖아. 그러니까 나라도 이모

힘 되어주고 싶다고,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거야.
그루 (감격) 셋별아...
셋별 응?
그루 (정색)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너 된장 담그는 거 몸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 누가 모를 줄 알고!
셋별 (들켰다) 젠장, 좀 모른 척 넘어가 주면 안 돼?

달빛이 장독대를 환히 비춘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장독 하나가 수상할 정도로 빛이 나는데 찢 3에서 수정구슬에 흘렀던 특정한 문양이 장독 표면에 반짝했다 사라진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셋별과 그루, 둘 다 긴장한 낯으로 침을 꿀꺽 삼키고.

셋별 달이 참...밝네.
그루 그렇게 달이 참...

셋별과 그루,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슬금슬금 빛이 나는 장독으로 다가가는데 등 뒤에서 수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린다.

수정 스탱, 둘 다 내 장독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수정의 목소리에 셋별과 그루 얼굴에 둘 다 들켰다! 싶어 낭패한 기색이 스친다. 뒤를 돌아보면, 수정이 창문에 몸을 반쯤 내밀고 국자를 든 손을 허공에 휘휘 저으며 경고를 날리고 있다.

수정 니네들이 꿈으로 뭘 해먹고 살든지 상관없지만 내 장독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 말에 아쉬워하는 얼굴로 마지못해 집 쪽으로 돌아서는 셋별과 그루.
F.O.

찢 27. 셋별의 집 앞/D

셋별의 집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선다.
그리고 차 뒷문이 열리면서 구두를 신은 여자 발 하나가 나와 단단하게 땅을 내딛더니 선글라스를 쓴 경선이 차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경선, 도도하게 턱을 지켜두고 <마씨 된장>이라고 적힌 세로 간판과 대문 옆에 달린 <꿈의 마녀> 팻말을 번갈아 바라본다.

경선 주소는 여기가 맞는데... (짜증, 선글라스를 벗으며) 사무실이 왜 이렇

게 후진 데 있어?

이윽고 뒷좌석에서 경선을 따라 차에서 내리는 태훈, 어리바리한 모습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씬 28. 컨테이너 사무실 안/D

책상 두 개와 소파 세트가 자리한 컨테이너 안.

셋별, 빈 책상을 걸레로 닦은 뒤 자신이 퇴사할 때 가지고 왔던 개인 물품들을 올려 놓는다.

경선 계신가요? 실례합니다!

그루와 셋별의 시선이 모두 문 쪽으로 쏠리면,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경선이 사무실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 뒤를 새끼오리처럼 졸졸 따라오는 태훈.

경선 여기가 <꿈의 마녀> 맞죠? 그, 꿈으로 연예인 영업을 해준다는.

그루 (경계심 어린 눈으로 경선을 보며) 예, 맞습니다만.

<시간 경과>

<인서트>

그루의 손에 쥐어진 KS엔터테인먼트 주경선 대표라고 적혀있는 명함

그루, 받은 명함을 내리면서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는 경선과 태훈을 똑바로 바라본다.

셋별, 음료수가 든 컵을 사람들 앞에 하나씩 놓아준 다음 그루 옆에 앉는다.

불청객을 대하는 그루의 얼굴에서 언짢은 기색이 묻어나고

셋별, 평상시와 다르게 냉기 폴폴 날리는 이모의 모습이 낯설고 의아하다.

경선 미리 전화하지 않고 찾아온 것은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대표님이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시니까...

그루 저희는 보통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은 다른 의뢰를 받지 않고요. 지금 대기가 많이 걸려있으니 답답하더라도 기다리시는 게-

경선 (말 자르며) 아니, 우리 아가, (잠시) 우리 태훈이도 팬이 있을 만큼은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런 시시한 팬들이 아니고요.

그루, 셋별 (시시한 팬이라는 말에 이견 뭐지? 싶은) ...

경선 ...혹시 특정인한테만 유독 강력하게 꿈을 꾸게 할 수도 있나요?

그루 (째째한) 왜 그러시죠?
경선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그루 ...
경선 (미소) 가능하군요.

경선, 가방에서 파일을 하나 꺼내 그루에게 건넨다.
그루가 파일을 펼치면 50대 후반 정도의 부티 나는 여성-최회장의 사진과 신변 관련 사항들이 정리된 서류가 나온다.

경선 해피그룹 최희진 회장이예요. 아시죠? 해피백화점, 해피홈쇼핑... 그 분에게 태훈이 꿈을 심을 수 있을까요?
그루 왜 꼭 집어 이 분이죠?
경선 얼마 전에 태훈이 라이벌인 모 배우가 경쟁백화점 모델이 되었어요. 원래 태훈이랑 급이 비슷했는데 이제는 태훈이한테 들어오던 대본까지 그 친구한테 먼저 가요. (분노) 이건 공정하지 못해요.
그루 (비웃는) 저희한테 의뢰하는 건 공정하고요?
경선 (못들은 척) ...두 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루 거절하겠습니다.
경선 그럼 그 배로 드리죠.
그루 싫다고 했습니다.
경선 1억!

그 말에 그루는 여전히 싸늘한 반응이고
셋별은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놀랐다가 재빨리 표정을 수습한다.

그루 아무리 돈이 좋아도 싫은 일은 안하는 주의라서.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일어나서 사무실을 나서면)
경선 아니, 이것 봐요! 대표님! 대표님!

그루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가고
뒤따라 경선이 그루를 애타게 부르면서 그루를 따라 나가면
사무실 안에는 셋별과 태훈, 둘만이 남는다.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셋별의 눈치를 살피던 태훈, 어렵사리 입을 떼고.

태훈 저기...어...어떻게 좀 안 될까요?
셋별 저한테는 결정권이 없어요.
태훈 (바로 꼬리 마는) 예에...죄송합니다...

셋별, 태훈과 둘이 남겨진 것이 불편해서 괜히 딴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태훈 죄송합니다. 제가...

셋별 (태훈을 바라보면) ?

태훈 (울먹) 제가 부족해서...

셋별 (태훈이 울자 당황해서 방어하듯 두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고개를 절레절레) 어어어어어!! 이리지 마세요!!

태훈 제가 못나서 대표님이... 대표님이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하셔서 회사가 어려워요...그래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울음으로 말 못 잇는)

셋별 울어요? 아니 그게 뭐라고 울어요? 이봐요?

태훈 (연신 굽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셋별, 태훈에게 티슈 꺾을 내밀면서 한숨을 푹 쉬고

태훈, 티슈를 뽑아 코를 팽 푸는.

씬 29. 주방/D

콩 삶는 가마솥이 여러 개 걸려있는 부엌.

그루, 온기 없는 부뚜막에 걸터앉아 생각에 잠겨있는데 셋별이 부엌으로 들어온다.

셋별 이모! 오늘 처음 출근한 사원한테 이렇게 사무실을 떠넘기고 여기 숨어 있어도 되는 거야?

그루 그 사람들 아직 안 갔어?

셋별 안 갔어. 끝까지 버틸 기색이던데.

그루 이런 씨...

셋별 그냥, 해주자 이모야.

그루 ...

셋별 이모가 좀 그러면 내가 할까? 내가 할게!

씬 30. 컨테이너 사무실/D

그루와 셋별, 경선과 태훈 소파에 마주 앉아있다.

경선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사실 저희는 (셋별을 흘끗 보았다가 다시 그루를 바라보며) 대표님이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루 아니요, (셋별 가리키며) 이 친구가 할 겁니다. 저희 이실장이 실력이 아주 좋아요.

그루의 입에서 나온 ‘이실장’ 소리에
셋별, 저도 모르게 ‘내가?’ 하며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켰다가 경선의 시선을 의식하
고 재빨리 손가락을 내려놓고.

태훈 (해맑게) 네, 저도 저 분 좋아요!

경선 (경고, 묵직) 아가?

태훈 (기죽은) 제...의견은 중요하지 않죠...네. 조용히 있겠습니다...

경선,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경선 저기 제가 이 분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에 간단하게 테스트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셋별 보며) 저한테 제
가 지정하는 꿈을 꾸게 해주실 수 있나요?

셋별의 눈에 그루가 화를 참는 게 보인다. 저러다가 그루가 이 거래 없던 걸로 하자
고 소리칠까 봐 셋별, 가슴팍에 손을 탁 얹으며 자신만만하게 외친다.

셋별 그럼요, 하죠! 그 정도는 껌이죠!

경선 좋아요. 그럼 오늘 밤 제가 놀이동산에서 노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셋별 좋아요.

셋별, 자리에서 일어나 경선을 부른다.

셋별 제 앞에 서세요.

경선, 셋별 앞에 다가가 서는데 긴장이 많이 됐는지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경선 이거, 혹시 부작용은 없나요? 만약 제가 꿈에서 못 깨어난다거나
뭐 그런-

그루 (약간 짜증이 난) 꿈에서 무언가 잘못된다면 저희가 고객님의 꿈에 들
어가 그 꿈을 교정해 드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경선 제 꿈에 들어온다고요? 흠, 그건 좀 기분이 나쁜데...

그루 고객님은 기분이 나쁘실 뿐이지만 저희는 남의 꿈에서 돌아오지 못하
면 정말로 죽거든요. 그 말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AS를 해드린단
말입니다.

경선 꿈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완전히 죽어요? (흥미롭
다는 듯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말에 그루와 셋별 동시에 얼굴이 어색하게 굳으면서 경선의 시선을 피한다.

경선 ...대표님?

씬 31. [과거] 장독대/N

셋별(N) 그것은 이모가 ‘마녀의 꿈’ 사무실을 차리기 전, 하찮은 백수생활을 할 때였다.
당시 우리는 엄마가 반짝반짝하게 닦은 장독에 엄마가 담근 간장을 채운 다음 달그림자를 띄우면 수정구슬처럼 내가 만든 꿈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꿈을 꾸는 자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신체 일부를 간장에 넣으면 꿈속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루(30세, 씬 20때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차림이다), 초조한 얼굴로 간장독을 들여다 보면서 셋별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그때 향아리 안에서 손이 하나 툅 나와서 향아리 입구를 잡더니 이내 간장 속에서 푸, 하면서 셋별(18세)의 몸이 솟구쳐 오른다.

그루 봤어? 봤어?

셋별 어! 와, 신기해! 이거 진짜 되네?!

셋별, 신이 나 그루와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그루, 흠칫하며 물러선다.

그루 (정색) 셋별아, 일단 좀 씻자. 너 간장 냄새 장난 아니야...

셋별, 마음의 상처를 입은 표정으로 두 손을 들고 머쓱하게 서 있고.

셋별(N) 그리고 그날부터 며칠 동안 매일, 이모는 꿈을 꿔다.

씬 32. [과거] 그루의 방/N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있는 그루.

셋별(N) 이모의 말로는 한복을 입은 어떤 여자가 이모의 의식 저편에서 덩실 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고 했다.

<인서트>

초가집 안, 밖/D

초가집 마당에서 한복을 입은 여자가 춤을 추고 그루, 그것을 집 밖에서 담 너머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마치 불투명한 렌즈를 통해 보는 것처럼, 영상 자체에 블러 처리를 해놓은 것처럼 시야가 흐릿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루,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자리를 뒤척인다.

씬 33. [과거] 그루 방 안/D

셋별과 그루,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셋별 춤추는 귀신이 제일 위험하다며? 차라리 귀신이랑 몸싸움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루 그게 이상하더라고. 누가 내 발을 잡고 있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 흐릿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셋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이모, 내가 이모 꿈에 들어가 볼게. 나한테 머리카락 잘라 줘.

그루 야, 안 돼! 위험한 꿈이면 어찌려고 그래!

셋별 그럼 도망쳐 나오면 되지! 머리카락 잘라 줘. (그루가 망설이자) 어서!

그루, 잠깐 망설이다가 가위로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 셋별에게 내밀고

씬 34. [과거] 그루의 방/N

그루, 침대 위에서 잠에 빠져 있다. 꿈자리가 사나운지 간간이 몸을 뒤척이고.

그루가 잠든 것을 확인한 셋별,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빠져나온다.

씬 35. [과거] 장독대/N

사람이 하나 들어갈 만한 커다란 간장독, 간장의 표면에 달그림자가 떠 있다.

셋별, 간장에다가 잘라 온 그루의 머리카락을 넣는다. 간장 안에 그루의 꿈속, 어느 거리의 풍경이 어리기 시작한다.

그루, 발판을 밟고 올라가 심호흡을 하고 간장에 발을 담근다. 그리고 독 안으로 들어가는데 향아리 안에 가득한 간장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 하다.

씬 36. 초가집 안, 밖/D -꿈 속

그루의 꿈속에서 셋별, 초가집 앞에 서있는데 그 초가집은 다름 아닌 씬 8에 나왔던

잔느가 살았던 초가집이다.

낮은 담 위로 초가집 마당을 넘겨다보는데 그곳에 혼례복을 입은 귀신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 혼례복 차림의 귀신이 고개를 획 돌리면 눈이 있을 자리에 짙은 음영이 자리해있다.

셋별, 그 소름 끼치는 모습에 히익 놀랐다가 귀신이 추는 기괴한 춤에 ‘저게 뭐야...?’ 하는 표정을 짓는다. 무슨 걸그룹 군무 댄스 같은 것을 매우 멋없이 허우적허우적 추고 있는 귀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셋별, 무섭다기보다 어이가 없다.

셋별 아니 무슨 귀신이 춤을 저딴 식으로 춰...

하는데 누가 퍽!하고 셋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셋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면 잔느가 씨익 웃으며 셋별을 바라보고 있다.

잔느 안녕, 후손.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셋별 누, 누구세요...?

잔느 나는 니 마녀 할머니야. 내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

하다가 잔느, 깜빡했다는 듯이 마당에서 춤을 추고 있는 색시 귀신을 향해 소리치고

잔느 곱단아! 춤 그만 춰도 돼!

그 말에 색시 귀신 헉헉 하면서 동작을 멈추고

잔느 (안스럽고) 아이구, 우리 곱단이 힘들었어요? 언니가 미안해!
우리 이따 애 보내고 맛있는 거 먹자!

곱단, 고개가 부러져라 끄덕인 다음 신이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잔느, 다시 셋별에게 시선을 돌려 신신당부한다.

잔느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내 자손들 중에 아무도 내가 물려준 능력을 알아챈 사람이 없었어. 너희가 처음이야. 그러니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너희 이모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해서 너를 불렀단다.

셋별 ?

잔느 남의 꿈에 들어가서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셋별 ?

잔느 그러면 현실에 있는 너의 육신도 죽는단다.

셋별 !!

잔느, 손을 들어 셋별의 얼굴을 쓸어주며 신신당부한다.

잔느 남의 꿈에 들어가는 일은 그렇게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 함부로 남의 꿈에 드나들면 안 돼. 알겠니? 그게 믿을 수 없는 자의 꿈이라면 더욱 더.

셋별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네...

잔느 그리고...이건 한 가지 팁인데 말이야.

잔느, 얼굴을 셋별의 귓가에 대고 셋별에게 무언가 속삭인다.

셋별,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를 마친 잔느는 셋별을 보고 생긋 웃는다.

잔느 이제 할 이야기는 다 했으니 돌아가 보렴.
돌아가는 방법은 잘 알고 있지?

잔느, 셋별을 돌려세우는데 돌려세운 방향으로 낮 하늘에 달이 선명하게 떠있다.

잔느 자, 저 달을 향해 뛰어가, 달이 사라지기 전에 어서.

셋별 (고개를 끄덕이며) 네...

잔느 (프) 그리고 돈 많이 벌어라, 내 후손아. 나는 악마와 친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세상에서는 돈이 있다면 악마가 필요 없더구나.

말을 마치자마자 잔느, 셋별의 등을 손바닥으로 탁 치고 셋별은 그와 동시에 달이 떠 있는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썩 37. [과거] 장독대, 마당/N

항아리에 담긴 간장의 표면에 일렁이는 달그림자, 그리고 이내 간장 안에서 셋별이 잠수를 하다 나온 것처럼 푸우, 숨을 몰아쉬며 솟구치고 때마침 마당을 지나가던 수정,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한다.

수정 뭐야! 너 뭐하는 짓이야!

수정, 허둥지둥 장독대로 달려와 항아리에 담긴 것을 찍어본 다음, 간장임을 확인하고

수정 (경악에 차) 내 간장!!

셋별 어, 엄마...

수정 너 이 기집애야, 이게 한 독이면 돈이 얼마 줄 알아?!

(울음마져 섞인) 아이고... 내 간장, 이 귀한걸...!!

(살기) 내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죽여 버린다고 했어, 안 했어!

찰싹찰싹 셋별이 등짝 맞는 소리와 ‘악, 악, 엄마 그만 때려’ 하는 셋별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씬 38. 컨테이너 사무실/D

씬 30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셋별 (쓸쓸한) 그냥, 알아요.

그루 네, 그냥... (시선을 먼데 던지며 쓸쓸한 미소) ...그냥 알죠.

셋별과 그루의 아련해진 눈빛에 어리둥절해하는 경선과 태훈.

씬 39. 경선 침실/N

기분 좋은 얼굴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경선.

경선(OFF) (신이 난) 와, 정말 꿈이 껴지잖아?!

씬 40. 놀이동산/N -꿈 속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고 회전목마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공원의 한가운데 홀로 놓인 경선, 테마파크 머리띠에 츄러스 따위를 들고 얼떨떨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본다.

경선 (감탄) 하, 이것들 봐라? 아주 사기꾼은 아니었어?

경선, 놀이동산을 통째로 전세 낸 듯한 쾌감에 신이 나서 소리도 질러보고 놀이동산 안을 달려보기도 하고.

씬 41. 컨테이너 사무실/D

그루와 셋별, 경선과 태훈 마주 앉아있다.

전날과 달리 한껏 흥분한 경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루에게 내민다.

경선 자, 대표님도 어서 사인하시죠!

경선과 그루, 서로 사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으면

경선 (태훈을 보며) 됐다, 우리 아가! 이제 드디어 뜨겠다.

경선이 뿌듯하게 태훈을 보자 태훈, 영문도 모르고 따라 웃고
셋별, 그런 태훈을 ‘저런 속없는 놈...’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그루 저희는 실제로 만나야 꿈을 꾸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
 듯이 최회장님을 만날 수 있도록 대표님이 꼭 도와주셔야 하고요.
경선 그럼요, 당연히 도와 드려야죠.

썩 42. 몽타주

1. 컨테이너 사무실/D

책상에 앉아 최회장에 대한 정보를 웹서핑으로 찾아보고 있는 그루와 셋별.

2. 길가/D

셋별과 그루, 셋별의 경차를 길가에 대고 건너편 호텔을 훑쳐보고 있다.
호텔 정문에서 최회장이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

3. 동네 일각/D

셋별과 그루, 동네를 돌아보며 동선을 짜고 있다. 셋별이 길에서 걸어오면 그루가 모
퉁이에서 부딪히는 각도를 연구하며 합을 맞추고.

4. 식당/D

식당 룸에서 경선, 세련된 차림의 여성(30대 후반)과 마주 앉아있다.
경선, 여성에게 쇼핑백을 내밀면 쇼핑백 안에 가방이 들어있고
여성, 가방을 열어보면 가방 안에 현금다발이 가득 들어있다.
여성, 얼굴에서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경선 잘 부탁드립니다.

썩 43. 다세대주택 일각/D

스파 직원(여, 20대), 출근하기 위해 막 집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 건물을 나선다.

썩 44. 동네 일각/D

잔걸음으로 골목 모퉁이를 돌던 스파 직원,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루와 부딪힌다.
그루, 우연을 가장하여 들고 있던 텀블러에 있는 액체를 스파 직원에게 짹 끼얹고 검
은 액체가 스파 직원의 옷을 흠뻑 적시는데
스파 직원, 소리를 지르고 옷을 살펴보는데 옷이 엉망이 되었다.

그루 (놀란 척) 어머 이걸 어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파 직원 (울상)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옷 다 버렸네, 어떡해...

하는데 옷에서 풍기는 냄새가 심상치 않고

스파 직원 (냄새 킁킁 맞으며 그루에게) 이게 무슨 냄새예요?
그루 그게...제가 먹는 한약인데....죄송해요, 냄새가 좀 심하죠?

스파 직원,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해 어쩔 줄을 모르는데

스파 직원 (옷을 문지르며) 어떡해...안 지겠네...(하다가 고개를 들어 그루를 보며) 조심하셨어야죠!

하는데 스파 직원의 코앞에 언뜻 보아도 300만원은 될 것 같은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불쑥 내밀어진다.

그루 많이...속상하시죠? 옷, 좋아 보이는데 이 돈으로 새로 하나 사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현금박치기 하는 직업이라서 마침 돈이 조금 있네요.

스파 직원 (당황스러운) 아니...돈이 너무...많은 것 아닌가요?

스파 직원, 그루의 진정한 사과(?)에 급속도로 차분해지면서 관대함을 되찾는다.

그루 제가 있는 게 돈 밖에 없어서요. (애원하듯)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스파 직원 (갑자기 자애로워지고)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 제가 이해해야죠. 한약을 드시다니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걱정) 어서 건강해지셔야 할 텐데.

씬 45. 동네 일각/D

스파 직원, 어디론가 전화를 걸면서 왔던 길을 도로 거슬러 올라가 집으로 돌아가고

스파 직원 네, 실장님. 그래서 제가 두어 시간 늦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오늘 최회장님 예약 있는 날인데.

매니저(F) 사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씬 46. 스파 살롱 데스크/D

데스크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매니저, 썬 42 몽타주 4에 나왔던 바로 그 여자다.

매니저 (기꺼운 속내를 감추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건너편의 직원을 부른다.

매니저 애, 이리 와 봐.

직원, 매니저에게 오면

매니저 오늘 최희진 회장님 오전 11시에 방문하실 거거든.
니가 족욕실에서 주문을 받아.

카메라 팬하면, 그 직원이 다름 아닌 샷별이다.

샷별 네, 알겠습니다!

썬 47. 스파 살롱 족욕실/D

최회장, 족욕실 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다.

샷별, 최회장에게 배쓰솔트를 종류별로 내보이며

샷별 어떤 솔트로 하시겠어요?

최회장 추천해봐.

샷별 라벤더솔트는 어떠세요,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최회장 그래? 그럼 그걸로 하지.

샷별 (미소 지으며 최회장을 바라보는) 네, 분명 오늘 밤 좋은 꿈을 꾸실
거예요.

썬 48. 최회장 침실/N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침실 안, 최회장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인서트>

1)유람선 뱃머리/SKY

노을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유람선의 뱃머리에 서서 영화 <타이타닉>의 잭과 로즈와 같은 옷을 입고 태훈은 최회장의 허리를 붙잡고 최회장은 양 팔을 벌린 채로 타이타닉 영화 속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회장 (감격) 내가 날고 있어요!

이윽고 최회장과 태훈, 백허그하며 키스.

2)바다 위/N

영화 <타이타닉>의 조난 장면, 부서진 배의 조각 위에 최회장 올린 뒤에 자신은 물에 남아있는 채로 태훈이 열심히 최회장의 팔을 문지른다.

태훈 희진, 계속 움직여! 움직여야 해...

<시간 경과>

배의 조각 위에 올라가 있던 최회장, 멀리서 소리를 듣고 태훈을 깨우는데 태훈, 조각을 붙잡은 채로 그대로 얼어 죽어있다. 태훈을 흔들며 울음을 터뜨리는 최 회장.

현실에서 최회장, 여전히 잠에 든 채로, 이불을 입안에 옥여넣으며 울고 있다.

씬 49. 장독대/N

셋별과 그루, 간장독 속을 통해 최회장의 꿈을 지켜보고 있다.

그루 야, 넌 젊은 애가 무슨 타이타닉이야, 타이타닉은. 너무 고전 아니야?
셋별 왜 이래, 클리셰는 영원하다, 몰라? (하다가 마당 한쪽을 보고 흠칫 놀라) 엄마 온다!

그루, 그 말을 듣고 시선을 집 쪽으로 던지면 집에서 마당으로 나오는 수정 보이고 그루와 셋별 들키지 않으려고 몸을 낮추고 조용히 향아리 뚜껑을 닫은 다음에 조심조심 장독대를 빠져나간다.

씬 50. KS엔터테인먼트 대표실/D

경선, 책상에 앉아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경선 네 여보세요.

비서(F) 안녕하세요, 해피그룹 비서실입니다.

경선, 놀라고 기쁘고...터질 듯한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핸드폰을 고쳐 잡는데

비서(F) 저희 회장님이 백화점 면세점 모델로 지태훈씨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식사자리를 가졌으면 한데 언제가 괜찮을까요?
경선 (감격)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시간만 알려주세요!
F.O.

씬 51. 컨테이너 사무실/D

F.I.
셋별, 마뜩찮은 표정으로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그 모습을 본 그루, 셋별에게 묻고

그루 왜, 뭐 문제 있어?
셋별 그게...KS 엔터 주대표 있잖아, 전화를 안 받네.
그루 ...
셋별 저번 주에 최회장이랑 지태훈 배우랑 밥 같이 먹게 되었다고 되게 좋아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안 돼, 잔금 넣어달라는 메시지도 다 씹고.

그루, 어이가 없고 화도 나고.

씬 52. 기획사 건물 전경/D

경선(OFF) 저, 그 돈 못 드릴거 같아요.

씬 53. 기획사 대표실 안/D

셋별과 그루, 굳은 표정으로 대표실 책상 앞에 서 있고 경선, 책상 앞에 앉아 셋별과 그루를 향해 차갑게 이야기한다.

경선 저번에 시험용으로 실장님이 저한테 심어주신 꿈 있죠. 그거 때문에 잔금은커녕 제가 그쪽 회사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할 판이라고요!
셋별 (당황하고) 그 꿈이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경선, 셋별의 시선을 살짝 피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경선 꿈에서 계속 놀이동산에서 길을 잃고 이상한 인간들이 쫓아와요. 밤마다 그러니 잠을 자도 잔 것 같아야 말이지.
셋별 뭐라고요?!
경선 인정상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을게요. 그러니 계약금만 받고 떨어지

세요.

셋별, 기가 탁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루, 차가운 얼굴로 경선에게 묻는다.

그루 이봐요, 당신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경선 애초에 꿈 영업이라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에 셋별과 그루의 얼굴, 분노에 휩싸이고
경선은 둘이 말이 없자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더욱 신나서 셋별과 그루를 비난한다.

경선 그나마 얼마라도 받았으면 고마운 줄 알 것이지, 어디 뻔뻔하게 찾아와 잔금을 내놓으래? 내가 아는 기자들 동원해서 전국적으로 얼굴 한번 알리게 해 줘?!

분노로 부들부들 떨던 셋별, 경선 앞으로 다가가 불쑥 손바닥을 내민다.

셋별 머리!
경선 뭐야!
셋별 머리카락이나 손톱 깎아주세요. 내가 그쪽 꿈에 들어가려면 그게 필요하니까.
경선 뭐?!
셋별 악몽을 꾀다면서요? 그럼 내가 AS 해드려야지. 안 주면 내가 여기에서 당신한테 새로운 최면을 걸 거야. 진짜 악몽이 될지 제대로 겪게 해줄게. 자는 게 무서워서 카페인에, 약에 찢어가며 발발 떨게 해줄 거야. 그게 싫으면 내가 당신 꿈에 들어가게 해줘. 내가 만든 꿈을 한번 봐야겠어.

파랗게 질려 셋별을 보며 바들바들 떨던 경선, 내뱉듯 말한다.

경선 그래, 뭐! 마음대로 해보시든가!

하면서 셋별 보는 앞에서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 셋별에게 내밀고.
셋별, 경선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대고 위협하듯 말한다.

셋별 오늘 밤 다시 꾸시죠, 그 꿈을.

씬 54. 장독대/N

찰랑찰랑하는 간장의 표면에 반짝이는 달을 내려다보는 그루와 셋별.

셋별이 들고 있던 경선의 머리카락을 간장에 떨어뜨리면 간장의 표면에 놀이공원의 모습이 어린다.

셋별, 의자에 올라가 간장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런 셋별을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는 그루.

그루 괜찮겠어?

셋별 (씨익 웃으며) 걱정마, 잘 다녀올게.

천천히 발끝부터 간장독에 담그는 셋별.

씬 55. 놀이공원/N -꿈 속

허공에 난 블랙홀과 같은 터널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발끝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셋별. 셋별이 바닥에 착지하자마자 구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셋별, 주위를 둘러보는데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놀이공원, 사방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놀이기구는 돌아가지만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셋별,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걸음을 옮기는데 등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타닥타닥 들린다.

셋별, 뒤를 돌아보자마자 번쩍이는 칼날이 셋별의 어깨 위로 떨어지고 셋별 놀라 화급하게 몸을 피한다.

셋별 너 누구야?!

서양 가면무도회에서 쓸 법한 기묘한 가면을 쓴 사람이 중세시대 기사들이 차고 다닐 법한 긴 칼을 들고 재차 셋별을 공격한다. 공격을 이리저리 피하던 셋별.

가면을 쓴 사람이 점프를 하면서 셋별을 칼로 내리찍으려고 하다가 셋별이 피하자 칼날이 바닥을 찍으면서 가면을 쓴 사람도 바닥을 뒹구르르 구른다. 가면인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하는 틈을 타서 셋별, 가면인의 얼굴을 차서 가면을 날리는데 가면이 날아가고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경선이다.

셋별 주경선...? 대표님...? 아니, 당신이 왜...?

하다가 셋별, 예전에 주경선과 했던 대화를 떠올리고 아뿔싸 싶은데.

<플래시백>

썸 30.

그루 고객님은 기분이 나쁘실 뿐이지만 저희는 남의 꿈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정말로 죽거든요. 그 말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AS를 해드린단 말입니다.

경선 꿈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완전히 죽어요?

회상에서 돌아온 셋별, 경선을 향해 분노한다.

셋별 와, 고작 잔금 몇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해? 너 정말 쓰레기구나?

얼굴이 드러나는 바람에 당황했던 경선이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공격 태세를 갖추는 것을 보고 셋별, 당황하다가 무슨 생각인가 피식 웃는다.

셋별 그새 잊어버렸나 본데, 이 꿈이 내가 설계한 꿈이라는 것을.

경선, 그게 무슨 뜻이냐는 듯이 셋별을 바라보면

셋별 당신 같은 쓰레기 고객을 대하기에 앞서 우리 조상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거든.

<플래시백>

썸 36에서

잔느 남의 꿈에 들어가는 일은 그렇게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 함부로 남의 꿈에 드나들면 안 돼. 알겠니? 그게 믿을 수 없는 자의 꿈이라면 더욱 더.

셋별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네...

잔느 그리고...이건 한 가지 팁인데 말이야.

잔느, 셋별의 귓가에 입을 가져가 속삭인다.

잔느 너는 꿈의 설계자란다. 꿈을 설계할 때 너에게 유리하도록 미리 무기를 숨겨두거나 함정을 파두렴. 그 꿈의 주인이 너를 공격할 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해놔.

셋별, 경선이 방심한 틈을 타서 등을 돌려 뛰기 시작한다.

잠시 멍해 있던 경선, 칼을 들고 미친 사람처럼 샷별을 쫓기 시작한다.

경선 멈춰! 당장 멈추지 못해!

샷별, 테마파크 구석에 서있던 스넥카를 발견한다. 지키는 사람이 없는 스넥카 안에서는 팝콘이 타닥타닥 튀겨지고 있다. 스넥카 안을 향해 몸을 수그린 샷별, 기다란 장난감 총을 꺼내 경선을 겨냥한다. 장난감 총을 쏘는데 마치 진짜 총처럼 실탄이 발사되어 경선의 뺨을 아슬아슬하게 스쳐지나간다.

총알이 스쳐지나간 자리에 진짜 피가 나자 샷별을 향해 바락바락 악을 쓰는 경선.

경선 이런 법이 어딴어! 한국에서 총기라니! 반칙이잖아!

샷별 꿈인데 뭐 어때?

 그럼 돈 떼먹고 칼 휘두르는 건 한국에서 합법이니?!

경선, 몸을 돌려 샷별에게서 달아나기 시작한다.

샷별, 총을 쏘며 경선을 뒤쫓아 달린다. 장난감 총에서 승 승 발사된 총알은 경선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바닥이나 난간에 박힌다. 그러다 총알이 떨어진다.

샷별, 그러자 이번에는 테마파크에 배치된 쓰레기통에서 새로운 장난감 총을 꺼내들어 다시 경선을 쫓는다.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보던 경선, 경악한다.

경선 미친년, 대체 총을 몇 개를 숨겨둔 거야!!

그리고는 테마파크 중앙 건물에 나 있는 사람 키 두 배만 한 커다란 문을 밀고 들어간다. 그 뒤를 따라 샷별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씬 56. 홀/N -꿈 속

그곳은 무도회장 같은 넓은 홀이다. 수많은 사람이 번듯한 정장이나 아름다운 드레스 차림으로 홀을 메우고 있는데 모두 가면무도회와 같이 가면을 쓰고 있어 누가 경선인지 알 수 없다.

수많은 가면을 쓴 사람들이 샷별을 바라보고 있다. 수백 쌍의 눈동자 앞에서 장난감 총을 든 샷별, 식식거리며 외친다.

샷별 주경선, 나와. 너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인간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현실의 나는 아무런 처벌 안 받는 거 알지?

샷별의 외침에도 가면을 쓴 사람들, 미동도 없다.

샷별,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씩 웃으며 총을 든다.

셋별 그래, 그럼 다 쓸게.
셋별(E) (근심 어린) 근데 총알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때 셋별, 갑자기 고개를 출구 쪽으로 획 돌리더니 문밖에서 무언가 무시무시한 것을 본 것 마냥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친다.

셋별 (겁에 질린) 저게 뭐야!!!

그때 가면을 쓴 수많은 사람은 동시에 셋별이 바라본 방향을 보는데 딱 한 사람만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셋별을 응시하고 있다. 셋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총을 겨눈다.

셋별 너구나! 그래 너는 문밖에 아무 일이 없다는 걸 알겠지, 니 꿈이니까!

셋별의 손가락이 장난감 총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탕(E)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넓은 홀에 있던 경선과 셋별을 제외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간다.

썩 57. 경선의 침실/D

경선, 혁 소리와 함께 가슴을 감싸 쥐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콜록콜록 기침이 나와서 티슈를 뽑아 티슈에 대고 기침을 연달아 하고 보니 티슈가 빨강게 피로 물들어 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덩동덩동덩동 재촉하듯 들린다.(E)

썩 58. 경선의 거실/D

현관문을 연 경선, 문 앞에 서 있는 그루와 셋별을 보고 깜짝 놀라 표정이 굳는다.

셋별 방금 일어나신 모양이네요. 꿈에서 부상을 입으면 현실로 돌아오는 속도가 좀 느려요. 모르셨죠?

셋별과 그루, 놀라 굳어있는 경선을 제치고 제집처럼 거실로 들어온다. 그때 거실에 있던 경선의 핸드폰이 울리는데 발신인 표시에 지태훈이라고 되어있다. 경선, 발신인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전화를 받지 않고 셋별과 그루의 눈치를 살피는데

그루 (웃으며 턱으로 핸드폰을 가리키며) 왜 안 받아요? 전화 받아요. 뭔가 찢리는 게 있으신가?

경선, 덜덜 떨면서 핸드폰을 받으면 경선, 차갑게 지시한다.

그루 스피커 폰으로.

경선, 스피커폰 표시를 누른다. 이내 태훈의 쾌활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태훈(F) (신난, 기대 섞인) 죽었어?

경선 으...응?

태훈(F) 그 꿈의 마녀인가 무당인가 하는 애들 말이야, 꿈에서 죽이면 돈 안
줘도 된다고. 죽었어?

경선, 다급하게 전화를 끊은 다음 그루와 셋별의 눈치를 본다.

그루, 화가 나서 인상을 쓰며 경선을 째려보고 셋별, 기가 막혀 하! 한탄하며

셋별 저 자식도 한 패였어? 얼굴만 반반하니 연기를 더럽게 못해서 못 뜨
는 거라 생각하는데 연기력이 뛰어났구나?

경선 저, 저기 잔금은...잔금은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그루 아니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경선 그러지 말고, 제발...

애원하는 경선을 놔두고 그루와 셋별, 경선의 집을 나선다.

씬 59. 미용실/D

미용실 의자에 앉아 머리 단장을 받고 있는 최회장.

그때 미용실 직원이 쭈르르 달려와 최회장을 향해 쟁반을 내민다.

직원 숙면에 좋은 차입니다.

최회장, 손을 뻗어 쟁반 위에 종이컵을 잡고 카메라 팬해 쟁반을 들고 있는 사람 쪽
을 향하면 직원은 다름 아닌 셋별이다.

셋별, 거울을 통해 최회장을 바라보며 생긱 웃는다.

셋별 좋은 꿈을 꾸실 거예요.

씬 60. 무당 신당/D -꿈 속

꿈속이라 부옴한 화면.

신당 안에 앉은 최회장 신기한 듯이 방 안을 둘러보고 있다. 그리고 눈앞의 무당을

바라보면 한복을 입고 쪽을 지고 무당처럼 차려입은 셋별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최회장을 바라보고 있다.

최회장, 고개를 가웃하며 셋별에게 묻는다.

최회장 혹시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나?

셋별 기분 탓입니다, 회장님.

최회장 내가 회장직에 있는 건 어찌 알았고?

셋별 (뜨끔) 그, 그거야 점 치는 게 제 직업이니깐요.

최회장, 오후...하며 감탄하는 눈빛으로 셋별을 바라보고.

셋별 조만간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회장님에게 다가올 겁니다. 아주 요망한 인간들이니까 조심해야 해요.

최회장 그래?

셋별 남자는 어리고 여자는 나이가 있는데 여자가 자꾸 남자를 아가, 아가 부를 겁니다. 그런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최회장 ...

셋별 그 두 사람은 회장님에게 큰 손해를 입힐 겁니다.

썬 61. 최회장 침실/D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회장, 헉하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깬다.

썬 62. 한정식 집/D

최회장, 경선과 태훈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훈훈한 분위기 중에 경선이 맞은 편 최회장의 술잔이 빈 것을 확인하고 옆에 앉아있던 태훈을 팔꿈치로 쿡쿡 찌른다.

경선 태훈아, 아가. 회장님 잔 비었잖아, 따라드려.

그 아가, 소리에 최회장,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린다.

경선 어머 회장님, 왜 그러세요?

최회장 아, 아니. 갑자기 무슨 생각을 좀 하다가...

경선 아아...그러시구나. (태훈 보며) 아가 뭐해. 얼른 따라드리지 않고?

그 말에 최회장,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최회장의 행동에 경선과 태훈, 깜짝 놀라 최회장을 바라보고
최회장 애써 태연한 태도를 꾸며 경선과 태훈에게 이야기한다.

최회장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일어나야겠군요.
저는 이만 가볼 테니 두 분은 식사 마저 하세요.

최회장, 그 말만 남기고 도망 치듯 자리를 떠난다.
태훈, 당황해서 경선의 얼굴을 보고 경선, 애타게 최회장을 부르는데.

경선 회장님?! 최회장님!!

썸 63. 컨테이너 사무실 외경/D

샷별(OFF) 원래 개인 의뢰는 받지 않는데 메일 내용을 보고...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어요.

썸 64. 컨테이너 사무실 안/D

샷별, 30대 여자와 마주 앉아있다.
부스스한 외모에 화려하지 않은 차림의 여자,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다.

샷별 삶의...낙을 가지고 싶으시다고요.

여자, 한숨을 쉰 뒤 어쩔사리 입을 뗀다.

여자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서 매일 눈
을 뜨면 살기 싫다는 생각부터 들어요.

샷별 ...
여자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으로라도 살고 싶어요. 내 인생에 재미있는 것
이 딱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 아무 말 없는 샷별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묻는다.

여자 이걸 너무 비겁한 방법인가요?

샷별, 그 말에 생긋 웃으며 대답한다.

샷별 괜찮아요, 삶을 정도대로만 살 수가 있네요. 구명조끼 같은 거라고 생

각해요. 큰 배를 만나기 전까지 잠시 물에 뜨게 하는 구명조끼요.
여자 (감격한 표정을 짓고)
셋별 그럼 사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자, 고개를 끄덕이면
셋별, 심호흡을 한 다음,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주문을 건다.

셋별 제 눈을 보세요, 당신은 오늘 밤 좋은 꿈을 꾸실 거예요.

미소 짓는 셋별의 얼굴에서, <END>

오픈2022 당선작